

두류품종 및 조합에 따른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의 약충발육, 성충수명 및 산란

배순도, 김현주, 조현제, 박정규¹

영남농업시험장 식물환경과, ¹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

콩, 단감 및 사과 등을 흡즙하여 큰 피해를 주는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의 대량사육 방법을 확립하고자 식이기주로 두류품종 및 조합을 이용하여 유리시험관(26±2℃, 16L:8D, 두류건증자)에서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의 약충발육 및 성충의 증식력을 조사하였다. 약충의 영기별 발육기간은 1령에서 약 2.4일, 2령에서 4.0~5.1일, 3령에서 4.2~6.0일, 4령에서 4.4~6.9일, 5령에서 5.3~7.3일 이었다. 그리하여 약충기간은 20.0~27.7일 이었으며, 새알콩-대광땅콩에서 가장 짧았고, 강낭콩에서 가장 길었다. 우화율은 3.5~65%로 대광땅콩에서 가장 낮았으며, 새알콩-대광땅콩에서 가장 높아 식이기주에 따른 현저한 차이가 있었고, 유충의 영기별 사망율은 두류품종 및 조합에 관계없이 1령에서 가장 높았다. 성충수명은 5.5~11.2일로 새알콩-대광땅콩에서 가장 길었으며, 강낭콩-대광땅콩에서 가장 짧았고, 타조합에선 약 8일 이었다. 암컷의 산란수는 새알콩-대광땅콩에서 가장 많았으며, 강낭콩-대광땅콩에서 가장 적었다. 따라서 두류품종을 이용하여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를 사육하려면 일반콩(장유콩)-땅콩의 조합이 가장 효과적이고, 땅콩의 구입이 어려운 경우는 일반콩만 급여하여도 사육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나, 타조합의 경우는 사육에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졌다.